

전일동향

美 CPI 예상치 상회... 1,342.00원에 마감

14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35.10원(15:30 기준) 대비 8.90원 상승한 1,344.00원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로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미 CPI 예상치 상회에 반등하며, 1,342.0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.2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39.99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44.00	1345.00	1334.80	1342.00	1338.60
	엔화	846.48	848.55	839.80	839.99	-
	유로화	1500.95	1504.02	1489.63	1491.58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59	-2.51	-6.26	-14.71
	결제환율(수입)	-0.26	-1.56	-4.46	-11.54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...1,34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0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38.30, 15:30 기준) 대비 1.95원 상승한 1,339.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수출 네고물량에 상단이 막히며 보합권 등락 전망한다. 간밤 발표된 미국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확산 되었고, 이로 인한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강달러 흐름을 자극했다. 여기에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 가능성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다만, 미 달러화 지수가 장중 고점에서 일부 후퇴한 점에 더해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수급상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환율 상방 압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35.50 ~ 1346.75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1791.36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9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1621.48, -48.62p(-0.09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81.6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6845 억원